일제가 일본인 위해 첫 통수…20년 사업 노후관 정비 박차

광주 상수도 100년 역사와 과제

1939년 2수원지, 67년 4수원지
70~80년대 고지대 급수난
수원지 4곳 보급률 99.91%

광주시 일부 지역에 수돗물이 공급되기 시작된 지 100년이 흘렀다. 현재 광주시의 하루 수돗물 생산용량은 76만㎥로, 60여만 세대 148만여명의 광주시민들이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다. 수돗물 보급률은 99.91%에 이르고 있다.

◇'광주 상수도' 통수 100년=광주에 첫 수돗물 공급이 된 것은 1920년 5월20일이다. 1917년 6월13일 제1수원지 착공을 시작한 지 3년만이다. 제1수원지는 현재 광주시 동구 운림동 증심사 입구에 위치한 곳으로 시설용량은 하루 800㎥규모다. 1일 1인당 100ℓ를 급수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이었다. 최초의 정수시설인 정수장도 갖췄다. 광주의 근대식 상수도 도입은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들을 위한 것이었다. 1920년 근대적 상수도가 도입되기 이전 광주지역 음용수는 대부분 우물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수인성 전염병 등을 우려한 일본인들의 요구가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초 급수 구역은 일본인들에 의해 준공된 만큼 대다수 일본인들이 거주했던 충장로 일대였다.

◇광주 상수도 발전 가속화=1939년 제2수원지가 준공되면서 광주상수도의 새로운 발전에 가속도가 붙었다. 제2수원지는 저수량이 52만5538㎥ 규모로 제1수원지의 5배 수준이었다. 하루 2200㎥를 생산해 2만2000명에게 급수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추면서 그동안 넉넉지 못했던 급수 사정을 상당 부분 해결했다.

이어 1957년 3월 제3수원지(8000㎥/일) 준공, 1967년 4월 제4수원지(석곡수원지·1만5000㎥/일) 준공 등을 통해 광주 상수도는 빠르게 발전했다. 특히 광주시민들의 중요한 '젖줄'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동복수원지(10만5000㎥/일)는 광주시 상수원 전용 댐으로 광주시 차원에서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 또한, 범국가 차원에서 건설된 주암호는 광주를 비롯해 나주와 목포, 화순 등 전남 서부권에 1일 31만1547톤의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현재 광주 상수도의 주요 수원지는 동복수원지와 제2수원지, 제4수원지, 주암호 등 4개소로, 저수용량만 5억5896㎥이다. 정수장은 덕남, 용연, 각화 등 3곳으로 하루 76만㎥의 수돗물을 정수하고 있다.

◇1980년대까지 급수난 겪어=초기 수돗물 급수 방식은 높이에 따라 아래로 흐를 수 있도록 하는 자연유하방식이었다. 따라서 1960년대까지 재정과 기술부족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고지대에 급수가 불가능했다. 특히 1970년대 들어서 인구 증가와 산업 발달로 인해 급수 수요가 급증하면서 갈수기와 하절기에는 연례행사처럼 시간제 또는 격일제 등 제한급수가 이뤄지곤 했다.

학동과 월산동, 산수동 등 고지대 식수난이 심각해지면서 고지대를 중심으로 가압장이 설치되기 시작했다. 현재 광주시내에는 35개소의 가압장이 설치·운영돼 고지대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 다만, 고지대 일부 지역은 아직도 출수가 양호하지 못해 무인 가압시설 등이 설치돼 수돗물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

◇노후관 정비 등 해결 과제도 시급=1990년 광주 상수도사업본부가 출범하면서 본격적인 질적 변화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상수도 사업의 전문성 제고와 경영의 합리화를 이끌었기 때문이다. 광주상수도사업본부의 수질검사기관인 수질연구소는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부터 지난 2006년 인정을 취득하면서 수돗물 품질관리에 대한 국제적인 능력을 인정받았다. 이어 2011년에는 원수 분야에 대한 추가 인정도 받는 등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수질검사를 실시하면서 수돗물 수질면에서는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1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노후 수도관 비율이 전체의 50%가량을 차지하는데도 노후 수도관 교체 정비사업이 그동안 지지부진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히고 있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지난 2005년부터 2025년까지 20년 연속사업으로 상수도관 정비사업과 상수도관망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중이다. 하지만, 관내 노후관 665km 가운데 지난 2018년까지 375km에 대해 노후관 정비를 마쳐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광주 상수도가 100년을 맞은 만큼 노후관 정비사업 등 관로시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양질의 수돗물 공급은 물론 자원 및 생산원가 절감에도 크게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

한자리 모인 민주 영입인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9, 20호 영입인재 환영식을 마친 뒤 영입인재 1호인 최혜영교수부터 20호인 최기상 전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까지 영입인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만만한데가 없네…민주 광주 전략공천 '고심'

광주 1곳·전남 1곳 전망
지역 반발에 철회 가능성

민주당의 광주지역 전략공천이 점차 '폭탄 돌리기' 양상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당초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광주에서 2개 지역구 정도 전략공천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호남 민심의 눈높이에 맞는 진보·개혁적 영입인사들을 과감하게 투입, 강력한 민주당 바람을 일으켜 '호남 석권'에 나서지 않느냐는 관측이었다. 또 지역위원장 중심인 지역 정치권의 기득권 타파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전략공천 카드의 명분으로 꼽혔다.

하지만 '태풍의 눈'으로 거론됐던 민주당의 광주 전략공천 카드는 점차 힘을 잃어가면서 대상이 축소되는 것은 물론 '폭탄 돌리기' 양상을 보이고 있는 형국이다. 당초 2곳 정도 거론됐던 광주 전략공천 카드는 잘해야 1곳에서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상 지역도 북구 갑에서 동남 을로 이동하더니 최근에는 동남 갑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광산 갑·을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북구 갑의 경우, 중앙당에서 내부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등에서 민주당 주자들의 경쟁력이 검증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무소속 김경진 의원이 단단하게 버티고 있어 섣불리 전략공천에 나섰다가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 고려되면서 전략공천 후보지에서 벗어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반면, 동남 을은 최근 민주당이 영입인사인 최기상 전 부장판사를 대상으로 내부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전략공천 후보지로 부상한 상황이다. 동남 갑도 일부 예비후보들의 정치적 약점들이 거론되면서 전략공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또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광산 갑·을도 고소 고발과 정체성 문제 등 각종 논란에 따라 전략공천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고심도 커지고 있다. 당 지지율 등을 고려하면 광주에서 북구 갑 정도를 제외하고 어느 지역구에 전략공천을 하더라도 통할 가능성이 크지만 각 지역구 예비 후보들의 경쟁력도 타당 후보들에 비해 높아 전략공천에 나설 명분이 약하기 때문이다. 또 무리하게 전략공천에 나섰다가는 '오만병'이 도졌다는 후폭풍에 전체적인 호남 총선 전략에 차질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전략공천 가능성이 거론되는 지역구의 모 예비후보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 나의 지지율이 타당의 후보들보다 적어도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략공천을 검토한다는 것은 정치적 음모"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광주 전략공천 카드를 거둬들이지 않느냐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광주로 배정됐던 영입 인사 카드를 전남이나 수도권으로 돌리지 않느냐는 것이다. 또 이해찬 대표가 수차례 경선 원칙을 강조했다는 점도 다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광주의 각 예비후보 진영에서는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중앙당이 영입인사 지역구 배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느 정도 정치적 명분만 있다면 광주에 밀어넣기 식으로 전략공천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광주의 전략공천 불씨는 아직 꺼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역 민심이 수긍할 정도의 인물이라면 민주당이 광주에 1곳, 전남에 1곳 정도에서 전략공천을 밀어붙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17개 시·도지사 직무수행 평가

김영록 지사 9개월 연속 1위
이용섭 시장 '전국 톱3' 안착

김영록 지사

이용섭 시장

김영록 전남지사가 2020년 1월 전국 17개 시·도지사 직무수행 평가조사에서 65.5%의 지지도로 9개월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이용섭 광주시장 역시 3위권 내에 안착하며, 광주시장과 전남지사가 나란히 시도민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지역 내 현안사업에 대해 해법을 제시하고, 과거 숙원 사업을 해결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성인 1만7000명을 대상으로 시도지사 지지도를 평가한 결과 김 지사는 지난해 지난해 12월 조사 대비 1.8%포인트 상승한 65.5%를 기록했다. 김 지사는 17개 시도지사 중 유일하게 60%대 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1.0%포인트 오른 59.9%, 이용섭 광주시장은 0.4%포인트 오른 57.5%로 각각 2, 3위를 차지했다. 1위부터 3위까지 지방자치단체장 '톱3'는 지난해 12월과 변동이 없었다.

이번 조사에서 52.9% 지지도를 기록한 송하진 전북지사는 지난 조사보다 두 계단 올라 4위를 차지했다. 최문순 강원지사(49.2%)는 세 계단 상승한 5위였다. 이재명 경기지사(49.8%)는 지난 조사보다 두 계단 내린 6위를 차지했다. 이시종 충북지사(49.8%)도 공동 6위였다. 권영진 대구시장(48.8%), 원희룡 제주지사(47.9%), 양승조 충남지사(47.1%) 순으로 10위권을 형성했다. 박원순 시장은 44.1%로 지난 조사와 같은 11위, 이춘희 세종시장은 40.1%로 12위에 올랐다. 허태정 대전시장(39.5%), 김경수 경남지사(38.3%), 박남춘 인천시장(37.2%), 오거돈 부산시장(30.6%)이 뒤를 이었다.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이 불거진 송철호 울산시장은 지난 조사에 이어 이번에도 17위로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송 시장은 27.9%로 시도지사 중 유일하게 20%대 지지율을 받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3일까지 일주일간 전국 성인 1만7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응답률은 4.9%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